

## 주사랑교회 소식

###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 2. 맥추감사주일

오늘 주일예배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 3.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2025년 7월 1일(화) 첫날맞이 월삭예배가 새벽 5:30에 있습니다.

### 4. 구역예배

202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정현숙 권사님 댁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오후 1:20 출발  
( 다음 모임 : 박제연 집사님 가정 )

### 5. 교회교육주일 (칼레이기도사작)

2025년 7월 13일(다음 주일)은 교회교육주일로 지킵니다.

### 6. 주일 오후 소그룹 교제

오늘 오후예배 소그룹 교제는 <토된 비유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도는 중고등부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7.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이다남(노환), 박영대(노환), 임명순(발목 허리 인대 회복),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수면), 김옥화 집사(평안, 가족),  
김강준 어린이(치유와 회복, 심리적 안정), 김주형(사업),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정창재(공황장애, 믿음), 박제연(치유, 홈스쿨), 박태성(정력),  
강신주(사업, 가족) 최귀순(백내장 수술 회복, 관절) 윤라겸(아들건강),  
김민철 목사(유명교회, 폐암, 면역증대 되어 항암치료 받을 수 있도록)  
임진관 권사(안양샘병원-회복), 이상민 형제(신앙, 평안) 손준경 권사(평안)

### 8. 2025년 7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6.8 ~ 윤 -6.7)

07/07(월)-이판순 성도(-6.13) 07/14(월)-박창균 성도 07/19(토)-박제연 집사  
07/19(목)-문효은 자매 07/21(월)-노경민 학생 07/23(수)-문동진 권사(-6.29)

###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 주일대표기도

7/06 김혜숙 권사  
7/13 정현숙 권사  
7/20 한희락 학생  
7/27 박제연 집사  
8/03 임명자 집사  
8/10 임명숙 집사  
8/17 김혜숙 권사

## 교육과 수련의 달

### 행사계획

| 날짜    | 행 사 내 용                       |
|-------|-------------------------------|
| 07/06 | 맥추감사주일 (성찬예식)                 |
| 07/13 | 교회교육주일 / 칼레이기도사작              |
| 07/20 | 청소년한신예배(청소년부)                 |
| 07/27 | 교회학교 교사 한신예배                  |
| 28~30 |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드림캠프)<br>평택 더인타호텔 |
| 28~30 | 중고등부 수련회 (성령캠프)<br>신길교회       |
| 08/01 | 첫날맞이 월삭예배(성찬예식)               |
| 08/03 | 청소년 청년 한신의 주일                 |
| 08/10 | 해방기념주일                        |
| 08/14 | 교사 수련회(여름사역 평가 한신)            |
| 08/17 | 여름사역보고(교육기관 홈스쿨)              |
| 08/24 |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

### 주일 사랑 운영

| 요일 | 운 행 안 내                                                                     |
|----|-----------------------------------------------------------------------------|
| 주일 | 교회출발(9:45) ▶ 탑동(10:00)<br>▶ 화서동(10:10) ▶ 세류동(10:20)<br>▶ 교회(10:30)          |
| 귀가 | 교회출발(13:30) ▶ 탑동(13:40)<br>▶ 화서동(13:50) ▶ 동탄(14:20)<br>▶ 화성군 송신면 용포리(15:00) |
| 평일 |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

### 예배안내

| 구                   | 분         | 시    | 간     |
|---------------------|-----------|------|-------|
|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 11:00 |
| 주일오후예배              | 2부        | 낮    | 1:00  |
| 주일어린이예배             |           | 낮    | 1:00  |
| 토요학생부예배             |           | 오후   | 4:00  |
| 주일청년부예배             |           | 낮    | 1:30  |
| 수요저녁기도회             | 저녁        | 7:30 |       |
| 금요성령기도회             | 저녁        | 7:30 |       |
| 새벽기도회(월~토)          | 새벽        | 5:30 |       |
| 화요중보기도회             | 낮         | 2:00 |       |
| 목요구역예배              | 낮         | 2:00 |       |
| Who made the world? | (상당 후 진행) |      |       |
| Thinkwise(마인드맵)     | (상당 후 진행) |      |       |
| 쉐마학당                | (상당 후 진행) |      |       |



주사랑 8권 27호 | 2025년 7월 6일  
창립 2017.11.25 | 생령침후네번에 주일/맥추감사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 맥추감사주일 ) 인도:집례자

※ 목 도 ..... 출 23:16, 34:22 ..... 인 도 자

※ 찬 송 가 ..... 찬 93장 ..... 다 같 이  
( 예수는 나의 힘이요 )

※ 사도신경 ..... 다 같 이

※ 주기도문 ..... 찬 635장 ..... 다 같 이

성시교독 ..... No.106 감사절(2) ..... 인도자/회중

찬 송 가 ..... 찬 429장 ..... 다 같 이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대 표 기 도 ..... 임명순 사모  
( 교회학교 교육간사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7:12~17 ( 구 418 ) ..... 임명순 사모

광 고 ..... 인 도 자

말씀인도 .....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 담임목사

십 계 명 ..... 출 20:1~17 / 마 22:37~40 ..... 인도자/회중

봉헌찬송 ..... 찬 301장 ..... 다 같 이  
( 헌금위원 : 이재우 어린이 )

※ 축 도 ..... 담임목사  
(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

##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언금함에 미리 넣어주세요 / 기온일: 2025.07.04. )

십 일 조 : 김혜숙 정현숙 한승훈 임명순 / 김옥화

주정현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감사헌금 : 김혜숙 박대성 이광근 박제연(자녀) 이재우(생일) 전복순 / 김옥화  
오민지 한승훈 임명순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무명1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선교헌금 : 신정인(한누리교회)

후원헌금 : 소망제광교회 조은교회 희망찬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 주일 기관별 소그룹

오후 1:00 ..... 임명순 사모

대표기도 ..... 말 은 이

성경봉독 이사야 9:1~7 ( 구 977 )

말씀제목 약속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 수요 기도회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0:16-24 ( 신 109 )

말씀제목 생각을 성령의 뜻에 맡기다

##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 정현숙 권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4:38-44 ( 구 565 )

대표기도 ..... 임명순 사모

말씀제목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4)

##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1~6 ( 신 309 )

말씀제목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로마서 강해(월~금)

6일(일) 출 23:16 맥추절을 지키라

7일(월) 롬 13:1~7 그리스도인과 세상 관계

8일(화) 롬 13:8~10 사랑은 율법의 완성

9일(수) 롬 13:11~14 밝힌 그리스도의 옷 입자

10일(목) 롬 14:1~12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1일(금) 롬 14:13~23 믿음 따라 행하는 선

(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 국기선교(오주교후후스쿨)



### 해와선교(모로코)



###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 가타기관 선교

오폰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통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교육마을

- ⑦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충격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호 2:10~11)
- 이제 내가 그 ( )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 )과 ( )와 ( )과 ( )과 모든 ( )을 폐하겠고
- 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처럼 황무지가 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호 2:16~17, 19~20)
- <sup>16</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 )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sup>17</sup>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 )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sup>19</sup>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 )와 ( )와 ( )과 ( )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sup>20</sup>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 )
- ⑨ 모든 성도가 미혹과 꾀박과 유린을 당할 때가 오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나요? (단 12:10~13)
- 많은 사람이 ( )을 받아 스스로 ( )하게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 )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 )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 )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 )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 ⑩ 선지자 호세아와 음녀가 된 아내 고멜의 관계는 기록하신 하나님과 우상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호 3:1~5)
-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 )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라 ( )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 )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 )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 )도 없고 ( )도 없고 ( )도 없고 ( )도 없고 ( )도 없고 ( )도 없이 지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 )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 )를 경외하므로 ( )와 그의 ( )으로 나아가리라

(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호세이는 누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인가요? (호 1:1)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 )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②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호 1: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 )를 맞이하여 ( )을 낳으라 이 나라가 ( )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 )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③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로부터 난 첫 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호 1:4~5)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 )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파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 )임 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④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로부터 난 둘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호 1:6~7)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 )라 하라 내가 다시는 ( )을 긍휼히 여겨서 ( )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로부터 난 셋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호 1:8~9)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 )라 하라 ( )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⑥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이것에 비유하셨는데, 남 유다와 달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중언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 2: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 )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 )을 제하게 하라

선교편지 - 모로코 선교사 (선교사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보내주신 그대로 올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송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 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니라"(이사야43:19-21)

○비의 능력을 경험하고, 1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중에도 한량 없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NA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 NA를 기억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저희도 잘 뿌리내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6월에는 다른 나라에서 중동과 NA 선교사님들 모임에 저희 공동체도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와 ○비의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 일하시는 1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고 나가서 승리하는 구분된 일이 아닌, 기도하는 그 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보기에 모로코를 넘어서 큰일을 이루어 가시는 각국현장에 다녀오게 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스라엘과 2란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분들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몇 개국을 돌아가도 잘 도착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상황입니다. 그날 마주했던 상황들과 최근에 한국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주하면서, 조선을 조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사랑이 140년이 지난 오늘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어려움과 길이 막히는 듯한 상황 속에 어떻게든 보금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며 전하신 서양선교사님께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큰 부흥을 이루어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보금에 빛지고 사랑에 빛진 나라로써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모로코도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지 공동체에서 각 도시로 파송한 현지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형제를 만나러 중국 공동체와 현지 공동체와 함께 최근에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중국 공동체에서 후원하는 어린이 특수학교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닌 후원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분의 정확한 보장 없이 무엇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회사 이름으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보금을 전하는 삶을 넘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곳의 0원들에게 보금과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지인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 하며 교제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사는데 ○수를 믿기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지도자의 자녀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99.9% ○슬람 땅에서 학교도 다니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신자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자들의 자녀들 모로코 기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을 섬기고 세우고 믿음으로 걸어 갈 수 있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모로코에서 깊게 뿌리 내리며 하나님이 많이 열어 주실 때, 주신 마음들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 풀어내고 싶습니다.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모로코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곳도 날씨가 많이 뜨겁고 덥습니다. 저희도 중보자님들의 영과 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피에르&사랑 드림.



##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    | 서                | 예배진행  | 인도자 | BC | 오늘 본문의 연표 | Bible        |                   |            |
|------|------------------|-------|-----|----|-----------|--------------|-------------------|------------|
| 사도신경 | .....            | 다     | 갈   | 이  | 850       | 아하시야의 배반의 조짐 | 왕하 1:1-12         |            |
| 찬송가  | 찬 91장            | ..... | 다   | 갈  | 이         | 852          |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의 죽음    | 왕하 1:13-18 |
| 대표기도 | .....            | 임명순   | 사모  |    |           |              | 엘리아 승천과 엘리아 승계    | 왕하 2:1~14  |
| 성경봉독 | 왕하 4:38~44       | ..... | 윤   | 독  |           |              | 엘리아의 사역 시작        | 왕하 2:15-25 |
| 말씀인도 |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4) | ..... | 말   | 은  | 이         | 852          |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 등극 | 왕하 3:1-12  |
| 합심기도 | .....            | ..... | 다   | 갈  | 이         |              | 자식을 잃게 된 여인을 도움   | 왕하 4:1~7   |
| 헌금기도 | 찬 380장           | ..... | 말   | 은  | 이         |              | 자식 없는 여인을 도움      | 왕하 4:8-37  |
| 주기도문 | .....            | ..... | 다   | 갈  | 이         |              | 독성이 강한 우물을 고치심    | 왕하 4:38-44 |

### ■ 들어가는 말

하루는 선지자 엘리아는 긴 흉년으로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 사환에게 지시하여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도록 지시합니다(38). 어떤 생도가 채소를 캐려고 나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독성이 강한 야들 덩굴을 따 가지고 돌아와 국에 썰어 넣습니다(39). 제자들이 국을 먹자 날이 났고, 제자들은 국에 맹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40). 엘리아는 국속에 말가루를 넣어 맹독을 제거합니다(41). 또 하루는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자신의 첫 소산인 보리떡 이십과 자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아에게 봉헌합니다(42). 엘리아는 그 예물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지시합니다(42). 그러자 사환은 그 예물이 너무 적어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43). 그러나 엘리아는 그 예물을 무리가 다 먹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듭 지시합니다(43). 엘리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환이 예물을 무리에게 배분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명의 무리가 다 먹고도 남게 됨을 목격합니다(4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국과 미국의 대결 속에서 세계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갑이 비고 직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견고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축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 마저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색하고 공격적 태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 첫째,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엘리아가 길갈에 돌아왔을 이미 흉년이 든 상태였습니다. 길갈은 뽕엘과 여러고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제자 무리가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였고 선지자 엘리아의 가르침을 받아 사역을 지원하는 이들이었고, 엘리아의 승천 이후 엘리아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대 광야로 나와 가난과 기근에 허덕였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현실을 반영합니다(왕하 10:19~27). 파면당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대 광야로 이주했고(대하 11:13~16), 선지자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23,28), 선지자와 선지자의 사역을 후원하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영적 양식만이 아니라 육체적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렵게 구한 채소로 국을 끓였지만 독성이 강한 채소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에게 허락한 채소는 '데쎄(풀)'이나 '에쎄브'(채소)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채소'는 "오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근 중에서도 자라는 생존력이 강한 식물인데 보통 이런 식물들은 독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들 덩굴'은 독성이 강한 '야생 박'을 말합니다. 이를 모르는 제자들은 옷자락 가득히 열매를 거두어 손질한 후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죽음의 독"은 '죽음'에 대한 번역입니다. 이들은 독성 강한 음식의 고통으로 인하여 엘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은 엘리아는 솥에 가루를 던져 독을 제거함으로 먹을 만한 음식이 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엘리아가 여러고 성읍의 해로운 물에 소금을 던져 물을 고친 일과(왕하 2:21), 출애굽 후 마라에서 모세가 쓴 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져 달게 만든 일(출 15:25)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뤄졌다고 밝힙니다(43). 영적 기근의 시대에 온갖 중독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복음과 말씀의 해독제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둘째, 있는 것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알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드립니다. 바알살리사는 길갈의 서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입니다(삼상 9:14). 보리떡은 보리를 처음 추수하여 만든 음식이며, 채소는 '(붉은) 햇곡식'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첫 소산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 예물들은 가장 배고픈 시기임에도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예물입니다. 보리는 우기가 지난 후 처음 수확하는 작물이며, 수확 시기는 6~7월 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를 가져온 때와도 비슷한 시기입니다(요 6:4). 이때가 기근이 심할 때 였다면 바알살리사 지역도 풍성한 수확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첫 열매를 엘리아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

엘리아는 그것을 자신과 사환의 몫으로 취하지 않고 굶주린 제자들과 나눕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 셋째, 결핍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아의 명령에 사환은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는 양이라고 항의합니다. 그 시대에 의심하는 사환 게하시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의심하는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상식에 맞는 것만 믿는 시대인 요즘, 결핍은 흉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호 8:11)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휼에 입각한 성품과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선행에 앞서 말씀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순종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기갈의 시대는 은혜의 때로 변화시켜나가는 원동력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